

불법 튜닝차량 굉음에 시민들 “못살겠다”

폭주차량 소음에 잠 못 들고 배달 오토바이 난폭운전 아찔 광주 잇단 민원...구청 등 장비·인력 핑계대며 단속 '팔짱'

#1. 광주시 북구 일곡지구에 거주하는 심인순(여·52)씨는 주말밤만 되면 폭주자동차가 내는 소음 때문에 잠을 설친다. 심씨는 “폭주차량이 평일 밤에도 가끔 있지만, 주로 금·토요일 밤과 새벽에 잠을 깰 정도의 큰 소음을 내며 돌아다닌다”면서 “경찰은 단속을 안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북구 석곡·망월동 인근 주민들도 마찬가지다. 토요일인 15일 밤 9시경과 일요일인 16일 새벽 1시경에도 폭주차량들이 연이어 굉음을 내고 마을 앞 도로를 질주하는 바람에 일부 주민이 잠을 설치고 있다.

무등산 자락 농촌마을인 망월동 분토마을에 사는 한 주민은 “소음 때문에 잠에서 깬 적이 한두번이 아니다”면서 “제발 단속 좀 해달라”고 호소했다.

#2. 직장인 이동훈(35)씨는 최근 광주 대표 쇼핑거리인 충장로를 걷다가 정면에

서 굉음을 내며 돌진해 오는 배달 오토바이를 보고 화들짝 놀랐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행인 사이를 지그재그식으로 운전하고 있었다. 간발의 차로 오토바이는 A씨의 곁을 지나갔다.

광주 도심에 질주하는 폭주차량과 오토바이의 난폭운전으로 시민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다. 하지만 이를 단속해야 할 구청과 경찰,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장비·인력 부족 등을 핑계대며 상시 단속은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16일 광주 동구와 북구 등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광주시 동구 지산동 조선대 후문 인근에 거주하는 A씨는 배달 대형 오토바이 소음 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오토바이 소음은 주차된 차량의 경보장치가 작동될 정도로 크고,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신호무시, 일방

로 역주행, 속도위반을 일삼고 있다는 것이다.

산수동 주민 B씨도 지난달 12일 아파트 창문을 닫아도 배달 오토바이 소음 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다며 민원을 넣는 등 오토바이 소음 관련 민원이 매달 2-3건씩 꾸준히 동구청에 접수되고 있다.

동구청은 동구에만 오토바이 배달 대형업체가 3곳이 있으며, 각 업체마다 오토바이를 20여대씩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자동차 소음허용기준’은 승용차의 경우 100dB 이하(대형 105dB 이하), 이륜차 105dB 이하다. 100dB은 열차가 지나갈 때 내는 소음과 맞먹는 크기다.

오토바이를 단속하는 주체는 운행 허가를 내주는 구청이다. 하지만 구청은 소음 측정기 등 단속 장비를 보유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담당 인원은 1명에 불과해 배달 오토바이를 단속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동구 관계자는 “관련 장비를 가지고 있

는 교통안전공단과의 합동 단속이 아니고서는 상시 단속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며 “단속을 한다고 해도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도망을 가버리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무등산국립공원 주변 도로에서는 불법 튜닝 차량에 의한 소음 피해도 나오고 있다. 주말이면 지산유원지 입구 삼거리부터 북구 창동동 제4수원지를 거쳐 담양 방면으로 소음과 함께 질주하는 차량이 출현하고 있다.

폭주차량은 또 최근 개통한 북구 석곡동에서 일곡지구로 이어지는 도로를 타고 일곡지구 등으로 건너가 차량 통행이 적은 밤 늦은 시간과 새벽시간대에 주택가 도로를 질주하고 있다.

한편 오토바이·차량에 의한 소음민원이 이어지자 동구청 등은 연말까지 불법구조 변경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집중단속은 동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광주전남본부와 합동으로 진행되며 자체단속도 할 예정이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여고생 술먹이고 성폭행 방치 숨쳐 영광경찰, 고교생 등 2명 구속

영광에서 여고생을 모텔로 데려가 이른바 ‘초성게임’으로 술을 먹인 뒤 차례로 성폭행하고 방치했다가 숨지게 한 혐의로 고교생 등 2명이 구속됐다.

영광경찰은 16일 모텔에서 동네 여자 후배에게 술을 먹여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간)로 A(17·고 2), B(17)군 등 2명을 구속했다.

A군 등은 지난 13일 새벽 2시10분부터 새벽 4시15분까지 2시간여 동안 영광 한 모텔에서 C(16·고1)양에게 술을 먹이고 성폭행한 뒤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양은 이날 오후 4시경 객실을 청소하러 간 모텔 주인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 조사결과 고등학생인 A군과 C양은 과거 같은 초등학교를 나온 동네 선 후배 사이로, 이날 새벽 0시 30분께 A군이 전화로 C양을 불러냈다.

A군과 B군은 소주 6병과 과자 등 안주를 산 뒤 C양과 함께 모텔에 투숙했고, 술마시기 게임으로 미리 제시된 한글

자음을 통해 단어를 말하는 ‘초성게임’을 제안해 C양에게 소주 2병 반 이상을 먹였다.

경찰은 A군과 B군이 C양을 불러내기 전 메시지를 통해 초성게임의 답을 미리 짜놓았으며, 이를 모르는 C양은 게임 시작 1시간여만에 별주로 소주 2병 반 이상을 마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A군과 B군도 경찰조사에서 “모텔에서 게임을 통해 소주 6병을 나눠 마신 뒤 성관계했으며, 잊고 나오니 C양이 길게 잠이 들어 혼자 두고 되살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1차 부검결과 C양의 시신에서 A·B군의 DNA를 발견했으나, C양의 목에 뚜렷한 외상이 보이지 않는 등 아직까지 성폭행과 사망의 연결관계는 드러나지 않고 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부검을 의뢰했다. 한편 경찰은 미성년자를 혼수시킨 모텔 업주와 이들에게 술을 판매한 편의점 점주 등에 대해서도 위법 여부를 수사할 방침이다.

/영광·이종윤 기자 jlyee@

“수완지구 집단폭행 가해자 엄중 처벌을” 검찰, 최고 징역 12년 구형

검찰이 ‘광주 수완지구 집단폭행’ 사건 가해자들에게 최고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14일 오전 광주지법 형사12부(정재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모(31)씨 등 이 사건 가해자 9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3~1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들이 경찰 출동 이후에도 피해자를 때리는 등 공권력을 무시하고, 피해자가 실명에 이르렀다며 엄중하게 처벌해달라고 했다.

검찰은 다만 살려달라는 피해자 호소를 무시하고 폭행한 점에 대해 살인 미수 혐의 등을 검토했으나, 우발적인 상황에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살인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A씨 등은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잘못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 9일 열린다. 이들은 지난 4월 30일 오전 6시 28분께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서 택시 탑승 문제로 시비가 붙은 4명을 집단 폭행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추석 앞두고 미리 성묘 추석을 일주일여 앞둔 16일 광주시 북구 광주시립묘지를 찾은 성묘객들이 차례를 지내기 위해 묘소를 찾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잇단 경운기 사고...여수·나주서 2명 사망

농번기를 맞아 경운기 사망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16일 오후 1시 30분께 나주시 동강면에서 A(72)씨가 몰고 가던 경운기가 높이 5m 발 아래로 추락했다. 김씨는 출동한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은 김씨가 좁은 농로를 운행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앞서 이날 오전 8시50분께에는 여수시

돌산읍의 한 마을에서 B(85)씨가 경운기를 운전하던 중 창고 지붕에 머리를 부딪혀 사망했다. 경찰은 B씨가 자택 옆 창고에 진입하던 중 입구 높이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해 머리를 충돌한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나주=손영철 기자 yson@ /여수=김창화 기자 chkim@

메르스 광주 밀접접촉자 ‘음성’ 판정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자 발생 9일째인 16일 추가 감염자가 나오지 않고 있으며, 메르스 환자 A(61·서울)씨와 함께 비행기를 탔던 광주의 밀접접촉자 1명도 ‘음성’ 판정을 받았다. 또 광주-전남지역의 A씨와의 밀접접촉자 13명에게서도 아무런 이상 증상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광주시·전남도에 따르면 “A씨가 지난 8일 메르스 확진을 받은 이후 이날 오전까지 추가 감염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A씨가 탄 비행기 옆좌석에 앉았던 광주의 B씨도 지난 13일 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B씨는 오는 20일 2차 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으면 22일 자택 격리가 끝난다.

또 광주지역 밀접접촉자들도 모두 별

다른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애초 광주의 밀접접촉자는 11명이었는데 최근 2명이 출국을 해 밀접접촉자 수는 9명으로 줄었다. 전남의 밀접접촉자 4명에게서도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전국적으로도 A씨의 접촉자 중에서 발열 등의 증상을 보여 메르스 의심환자로 분류된 사람은 14명이었지만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음성 판정을 받았더라도 잠복기가 끝나기 전까지는 보건당국의 관리를 받는다.

한편 A씨는 현재 서울대병원에 격리돼 치료받고 있다. 애초에 기침, 가래 등 호흡기 증상은 경미했으며 현재는 안정적인 상태에 접어들 것으로 전해진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돈 빌려준 여성에게 “연애하자”며 음란사진 보낸 70대 벌금형

○60대 여성에게 ‘연애 한번 하자’며 스마트폰으로 음란한 사진을 전송한 70대 남성이 벌금형.

○16일 울산지법 형사6단독(황보승혁 부장판사)에 따르면 A(71)씨는 지난 4월 200만원을 빌려간 B(60대 초반·여)씨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 연애 한번 하자”고 제안했으나 대답을 하지 않고 이후 전화를 받지 않자,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B씨의 휴대전화에 음란한 사진을 전송했다는 것.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재판에서 벌금 3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는데,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 /연합뉴스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십니까?

사람은 자연에서 태어나서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무덤이 필요 없는 자연장

無덤

봄 햇살처럼 아낌없이 베풀었던 당신은
봉안시설과 무덤보다는
따사로운 햇살이 내리쬐는 이곳이 더 어울립니다.

후손에게 선물을, 이제는 자연장·수목장

광주·목포에서 장지까지 30분거리

수목장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례문화입니다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례문화입니다.

아름수목장

자연장·수목장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648-3(4층)
☎(062)412-2800